

# ‘무형유산’ 매력에 빠져봅시다~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일원  
10일까지 ‘대대손손 너나들이’  
학술대회·교류공연 등 다채



무형문화유산 마당극 한장면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무형유산의 도시 남원에서 무형유산의 대향연이 펼쳐진다. 남원시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사)무형문화재연구원이 주관하는 ‘2022 남원 무형문화유산주간 대대손손 너나들이’가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춘향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린다. 먼저 7일과 8일은 ‘무형유산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리고 9일에는 ‘남원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을 위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또 7~10일 ‘네트워킹축제 세계 무형유산 너나들이(전시)’, 10일에는 교류공연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첫번째 프로그램인 워크숍에서는 ▲무형유산의 이해(전북대 함형희 명예교수) ▲인류 무형유산 및 세계 기록유산(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 이승범 학예연구원) ▲남원 무형유산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진단(오르비 활동 대표이사) 등의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이어 9일 학술대회에서는 남원의 무형문화유산

과 남원의 미래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이어지며 남원 무형유산 전승자와의 대화 이어진다. 특히, 무형유산 전승자와의 대화에서는 10여명

의 전승자가 나와 참석자들과 대화를 이어가갈 계획이다. 전승자인 전인삼 명장은 대화 이후 특별 공연도 예정하고 있다.

7~10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펼쳐지는 ‘네트워킹축제 세계 무형유산 너나들이(전시)’에서는 남원의 미래 무형유산 발굴을 위해 ‘춘향제’, ‘삼동굿놀이’의 무형유산 지정 염원을 담은 사진전시와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세계 무형유산 관광답사’의 성과물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를 활용한 ‘남원온보소리여행’을 비롯해 이난초, 박양덕, 박양용, 송화자, 장효선, 안근 등 무형문화재 7명의 기록영상을 가상 현실로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10일 오후 1시30분부터는 남원과 익산, 진안, 진도 등 4개 시·군 무형문화재 합동공연과 지역 예술인들의 클라보공연도 펼쳐진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2016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될 만큼 무형문화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켜온 남원시에서 ‘2022 남원 무형문화유산주간 대대손손 너나들이’가 열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고 시대마다 변주되며 재창조되는 무형유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 160억 투입 치유문화도시 조성

문체부 법정문화도시 지정

고창군이 두 차례의 도전 끝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다.

고창군은 이로써 향후 5년 동안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본격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에서 고창군은 2년여간 예비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 효과와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6개 문화도시 반열에 올랐다.

여기에 ‘시민공론장-누구나 수다방’, ‘고창문화자원 나눔공간사업’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이나 콘텐츠,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고창군은 3년에 걸쳐 예비문화도시 사업으로 ‘치유와 힐링’ 도시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으며 또 지난해 3월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출범했다.

특히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를 비롯한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문화예술단체들도 자발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문화도시 지정에 큰 힘을 모아, 사실상 지역주민의 자발적 힘이 이번 선정의 최대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 주민 주체의 사업 기획과 추진 등 주민 중심, 공동체 중심의 활력 넘치는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고창군, 1회용품 사용제한 점검



고창군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1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확대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응하고자 관내 상가들을 상대로 한 홍보와 함께 1회용품 사용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된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는 플라스틱 컵 등 기존 시행 중이던 18개 품목에서 3개 품목을 추가 21개 품목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또 대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금지됐던 1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외에도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비닐 사용과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1회용 응원용품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

고창군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확대 대상 품목들에 대해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참여형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노인복지관 노년사회화 프로그램 회원들이 ‘청춘제’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남원시 제공>

# 남원 어르신들 배움의 향연

노인복지회관 ‘청춘제’ 성료...미술·사진·서예·시화 전시 등

남원시는 지난 2일 남원시노인복지관 노년사회화 프로그램 회원들의 축제인 장인 ‘청춘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남원시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청춘제’는 회원 및 가족 등 300여명이 참여해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어르신들이 1년 동안 닦아온 실력을 뽐내며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복지관 1~2층에는 미술교실, 사진교실, 서예교실, 캘리그래피, 한글교실의 시화 작품 등을 전시

해 축제의 향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연과 함께 시조교실 장순복 강사는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서예교실 소과광 어르신은 전국 서화백일대전에서 어르신부 대상을 수상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젊어서는 자식을 키우라 이루지 못한 청춘의 꿈을 이제는 맘껏 펼칠 때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배움과 함께 더욱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 시민 뮤지컬단

## 11일 연지아트홀 공연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돌레’의 시민 뮤지컬단이 오는 11일 오후 4시 연지아트홀에서 하반기 공연을 한다.

뮤지컬 갈라공연을 선보였던 시민 뮤지컬단 단원들은 이번 공연에서 하나의 완성된 뮤지컬 작품에 도전한다. 오디션을 통한 배역 캐스팅 후, 극에서 필요한 요소인 연기, 노래, 안무 등을 연습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

이번에 선보일 작품 ‘너와 나, 우리’는 임금착취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 감정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서점 직원, 장애가 있는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할머니, 자식을 두고 나와 혼자 살고 있는 희정 엄마 등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그린 뮤지컬이다. ‘서울 살아 몇 헹가요?’, ‘어서 오세요 제일서점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슬플 땐 빨래를 해’ 등의 넘버가 포함됐다.

특히 누구에게나 현실은 녹록치 않은 법이지만 일상 속 아픔을 털어놓고 서로를 위로하며 건네는 손길을 통해 하루하루 힘내서 살자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수용 사회적 기업 돌레 이사장은 “시민 뮤지컬단’이 여러 공연에 도전하면서 뮤지컬을 스스로 즐기며 점점 발전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멋있다”면서 “‘시민 뮤지컬단’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시, 공공하수도 관리 ‘환경부 장관상’

정읍시가 환경부의 ‘2022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과 함께 포상금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을 통해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공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높여겠다는 취지다.

올해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통 분야, 운영·관리 분야, 정책분야 등 4개 분야에서 총 38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정읍시는 하수도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관리 효율성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 요금을 현실화하고 노후 관로 개선사업 등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통해 방류수질 개선을 이뤄낸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